

Date: 아브월 19 일 5785 (August 13, 2025)

Torah Portion: 지켜 행하면

Topic: 그대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리라

신명기 7 장 13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네 태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소 떼의 새끼와 양 떼의 새끼를 복 주실 것이며, 네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히브리어 단어 נָקָה (에케브)는 일반적으로 “만일(if)”로 번역되지만, 문자적으로는 “발뒤꿈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 “**네가 들은 ‘뒤를 이어’...**” – 여호와와 계명을 지키면, 그에 이어 곧바로(“발뒤꿈치를 따라”) 다음 절들에 열거된 복이 임한다는 의미.
2. “**“발 뒤꿈치’ 계명이라도 지킨다면...”**” – 사람들이 흔히 무시하거나 무심코 “발로 밟는” 것처럼 소홀히 여기는 계명까지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라는 의미.
3. “**역사의 ‘발 뒤꿈치’ 때...**” – 복이 마쉬아흐 왕국의 시대, 즉 역사의 마지막 단계(“발뒤꿈치”)에 주어진다는 의미.
4. “**마쉬아흐의 발자취 시대에...**” – 여호와 창조주의 자녀인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영혼의 스파크들을 토라의 옛길 선한 길로 땅끝에서 불러 모으도록 여호와와 마쉬아흐(기름 부으심 받으신) 여호슈아께서 왕으로써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의 그 시대(그 ‘발자취’가 들리는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의미.

브릴(בְּרִית/언약)은 두 당사자가 서로가 절반으로써 하나로 묶는 서약입니다. 이 내적인 유대관계에 기초하여, 그들은 앞으로 상대방의 행동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경우라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창세기 12 장 1-3 절, 17 장 7-16 절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17 장 19 절, 26 장 3-4 절의 이삭과의 언약, 그리고 28 장 13-15 절의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후손을 항상 헤세드(인애)로 대하시겠다고 여호와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모세에게로 명하신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 준수를 전제로 하시는가하는 이유를 짚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맺으신 언약은 열방의 만민 가운데서 그의 백성으로 택정하신 관계를 이루시기 위한 포괄적 계명들이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스라엘께서는 여호와와 언약안에서 명하신 그 계명들을 두 마음 갖지 않고 순종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여호와와 백성이라는 칭호에서, 여호와와 신부로까지 연합하도록 하시는 가장 숭고한 관계로써, 더 나아가서 구체적이며 정묘한 계명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기록된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약을 맺은 상대는 창조주를 믿고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여호와 엘로힘께서 그의 뜻(계명)을 알려 주신 후, 사람이 마땅히 준행 해야 할 삶의 목적, 곧 그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면, 그 영혼에게는 유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미숙한 어린 아이가 저지른 잘못을 그저 눈감아주는 상태처럼 성숙한 어른의 행실까지 기대하지 않는 것에 머물게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조건 없이 눈감아 주는 지속되는 잘못은 여호와 엘로힘의 공의(정의)에 대한 믿음을 뿌리 내릴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가로 막게 되어, 결국에 선과 악을 분별치 못하는 영적 혼란과 수치를 받게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에서 나오신 영원한 진리, 공의, 그리고 온전하신 계명을 지킨 댓가로 주어지는 보상, 곧 빛은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수족의 노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엘로힘, 권능자께서는 각 사람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예정된 날들 가운데, 온 마음, 생명,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땀 흘림의 노력이 보상의 측량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감람류, 대낮의 햇빛보다 일곱 배나 밝고 무한한 빛은, 오직 여호와와의 절대 진리에 전심전력으로 쏟아붓는 자의 지속된 선한 행실과 비로소 한 짝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겉보기에 “작게” 보이는 계명이라도, “중요해” 보이는 계명과 동일한 헌신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계명의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들을 지닌 어느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를 찾아 그를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각 마음에 기억하고 손발의 선한 행실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전능자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자비의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한 영혼들이 힘쓴 노력에 비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면밀히 각각의 필요한 영역에 베풀어 주십니다.

샬롬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별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언어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슥 3:9

“여호슈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막 10:29-30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